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담당 부서 인천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	배포일자 2022년 11월 15일(화) 총 4매	담당 자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453-7031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세계적인 미술관 풍피두 분관 유치 나서

- 인천뮤지엄파크와 시너지 효과로 국제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 기대 -

인천시가 세계적인 미술관 중 하나인 프랑스 풍피두 미술관 인천 분관 유치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유럽을 방문 중인 유정복 시장이 11월 14일(현지시간) 파리에서 풍피두 미술관 로랑 르봉(Laurent Le Bon) 관장을 만나 인천에 풍피두 미술관 분관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가진 대표적인 국제도시로 풍피두 미술관이 인천에 진출할 경우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 명성을 떨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로랑 르봉 관장은 인천 유치단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인천시와 풍피두 미술관과의 협력을 논의하게 돼 기쁘다” 고 밝혔다.

인천시는 풍피두 미술관 분관을 유치해 국제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며, 분관 예정지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제4구에 위치한 퐁피두 센터는 근·현대미술관, 공공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1977년 개관했다. 조르주 퐁피두 프랑스 대통령이 플라토 보부르(Plateau Beaubourg) 지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들어졌다.

퐁피두 미술관은 루브르, 오르세와 함께 ‘파리3대 미술관’ 중 하나로 20세기 창작된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팝아트, 설치예술 등 약 13만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마르셀 뒤샹의 <샘>, 앙리 마티스의 <루마니아 풍의 블라우스를 입은 여인>, 마르크 샤갈의 <에펠탑의 신랑신부> 등이 있다.

현재 퐁피두 미술관 분관은 프랑스 메스, 스페인 말라가, 벨기에 브뤼셀, 중국 상하이에 있다.

유정복 시장은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서양의 현대미술 전시 기반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도시의 문화·산업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7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예술 랜드마크가 될 인천뮤지엄파크는 미술관, 박물관, 예술공원 등이 함께 조성되는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시설이다. 퐁피두 미술관 분관이 유치되면 인천뮤지엄파크와 함께 국제적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그외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퐁피두센터 (Centre Pompidou) 개요

근·현대미술관과 공공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프랑스 대통령 조르주 퐁피두가 추진한 보부르 지역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만들어 짐

- 소 재 지 : 프랑스 파리 제4구
- 개 관 년 : 1977년
- 규 모 : 10개층, 건축연면적 103,305m², 바닥면적 7,500m²
국립근·현대미술관 상설전시실 12,210m² / 특별전시실 5,900m²
칸딘스키 도서관 10,400m²(수용인원 2,200명)
공연장 384석 / 강의홀 315석 / 영화상영관 144석(2개관)
- 건 립 자 : 조르주 퐁피두(프랑스 대통령)
- 제 안 자 : 앙드레 말로(프랑스 문화부 장관, 소설가)
- 설계자/건축가 : 렌초 피아노, 지안프랑코 프란치니, 리처드 로저스
- 주요 소장품 :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20세기에 창작된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팝아트, 설치예술 등 약
13만점의 작품을 보유
 - 마르셀 뒤샹 <샘>
 - 앙리 마티스 <루마니아 풍의 블라우스를 입은 여인>(1940)
 - 바실리 칸딘스키 <검은 아치와 함께>(1912)
 - 피에트 몬드리안 <뉴욕 I>(1942)
 - 페르낭 레제 <여가-루이 다비드에게 보내는 경의>(1948-1949)